

별이 뜨는 바다



자연 환경 좋은 밴쿠버에 살면서도 우린 뭐 그리 바쁜 일이 많는지 밤 하늘 별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한 여름 캠핑장에 가서야 한숨 돌리고 고개 들어 밤 하늘 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름을 몰라 잡초라 부를 뿐이지 세상 모든 풀들은 이름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도 창조주가 부르시는 이름이 있고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 시 147:4

막막하게만 여겨지던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며 경험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광활하고 어두운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홀로 항해하던 우리는 아득히 보이던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마침내 빛에 다다랐을때 만난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의 또 다른 항해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와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만나고 여행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성난 파도에 고초를 겪기도 하며 지속하는 이 여행에서,
우리는 반가운 빛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흑암의 바다에 멈추어 떠 있는것이 아니며 반드시 목적지가 존재하는 여정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몸에서 빛을 내며 어딘가를 향해 가고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별들처럼 반짝이는 생명의 선물이 태어난 곳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요 1:3,4

여정은 멀고도 험하며 진행되는 시간동안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육체의 고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버거운 날들도 있습니다.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결혼 생활이 상처로 얼룩지기도 하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젖은 밤을 뜯눈으로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하는 죄를 동반하며 고단한 항해에 지쳐갑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절망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댓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상실한 것이며 바라보며 행진했던
거룩한 목적지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칠흙과 같은 현실의 바다에서 발견한 작은 소망은 아직 우리손에 성경이라 불리우는 나침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침반을 통해 마침내 우리는 거대한 은하수와 같이 모여드는 빛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별들이 쏟아지는 십자가 나무가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 가난한 목수가 다듬은 듯한 거친 표면은
무수한 대패질과 못 자국의 상처로 가득하고 몸통은 진주처럼 빛나는 붉은 천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나무 위에는 모든 여행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크고 아름다운 새벽별이 걸려져 있습니다.

모든 항해자들을 이끌어온 신호들은 새벽별의 상처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벽별은 자기 몸을 부수어 빛의 조각들로 편지를 만들어 머나먼 바다에 보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작은 빛을 만나 고향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을 마치고 바다에서 돌아온 빛의 항해자들은 새벽별의 아버지이자 모든 빛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별이 뜨는 바다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파도위에 비친 별들은 때로 청동 거울에 비친 얼굴처럼 희미하고 흔들리는듯 보이지만, 그것은 별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 들은 바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약속을 기억하며 바다의 거친 항해를 지속하는 우리는 암흑같은 세상에서도 별처럼 빛이 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새벽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아들의 손에 못을 박아 넣으시며 우리 손에는 별 보다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 3:16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못하고 두려운 삶의 바다에 나섰던 첫번째 항해자에 관한 기록이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기다려도 작은 빛조차 발견하기 힘들어서 홀로 외로움의 밤 바다를 지나던 아브라함은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잠시 현실의 바다 밖으로 나가신 후 별들이 지나가는 하늘의 커튼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밝은 새벽별과 주위를 둘러싼 수 많은 별들을 보게되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은 하나님의 시간속에 들어가서 장차 다가올 미래의 별들을 보게 된것입니다. 그의 눈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셀 수 없이 많은 항해자들의 은하계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천성 가는 순례자 들의 빛으로 가득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할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교회들을 보게 된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창 15:5

이제 여러분도 아브라함 처럼 인생의 두번째 커튼을 열며 약속의 항해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약속들로 뜻을 달고 십자가의 나무로 노를 저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등불을 밝혀 새로운 삶의 항해를 시작할 때,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 입니다.
가난한 마을 갈릴리와 슬픔의 동네 베다니에서 나의 가난과 슬픔을 등애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혈로 덮으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앞의 어두운 바다는 어느덧 새벽별 예수를 노래하는 합창으로 가득차게 될 것 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나무 아래 예수님의 보혈 아래 당신의 자리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